

## 낙관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규 리

김천대학교

이 상 회<sup>†</sup>

광운대학교

본 연구는 낙관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북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서 대학생 3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3을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초분석과 상관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과 진로결정수준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에서 사회적 지지(부모님, 친구)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갖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칭장면에서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낙관성, 진로결정 수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sup>†</sup> 교신저자 : 이상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sanglee@kw.ac.kr, 02-940-5423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에서 직업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중요한 진로준비 단계이며 이는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Erikson, 1968; Herr, Cramer, & Niles, 2004; Savickas, 1999).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조기 이직률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재 상황 때문에 대학생들은 진로, 직업 영역이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일괄적인 스펙 쌓기 위주의 취업준비와 열악한 진로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의 기회는 적어지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경험해야 할 진로발달을 대학시기에 와서야 속성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진로환경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지적 요소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새로운 심리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낙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리학에서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다루어 왔으나 인간의 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심리학에서는 역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낙관성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Peterson, 2000).

####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진로 영역에서 개인의 진로발달 및 의사결정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나 인지적 판단 등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일

반화된 긍정적인 기대로써 인생 전반에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믿는 긍정적 경향성을 의미한다(Seligman 2004). 그러므로 낙관성은 개인의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과업을 수행했을 때 긍정적 결과 기대에 대한 신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넓은 범위의 성격 특성으로 보다는 특정사건이나 문제 상황의 원인들에 대한 귀인을 의미하는 설명양식적 낙관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설명양식적 낙관성은 귀인성향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쉽게 설명하자면 해석양식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다(Seligman, 1990). 낙관성은 좋은 일들의 원인은 지속적으로 생활전반에 걸쳐 작용하며 모두 자신의 덕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나쁜 일들의 원인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일에만 작용하며 모두 외부 환경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적 해석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설명양식적 낙관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인생 전반에 대해 스스로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인지적 태도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이 지닌 능력, 흥미, 가치관과 더불어 이러한 요소와 관련된 인지적 변인들 이므로 심리내적인 요소들과 관련지어 낙관성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태도에 따라 자신의 능력, 환경, 기회 등과 같은 주변의 진로지지 자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직업적 만족과 진로장면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손은령, 이순희, 2012).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낙관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반영한 낙관성은 만족감과 쾌활함을

가져오고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시킨다(Tiger 1979). 또한 낙관성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밝은 면을 보게 되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며,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성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낙관성은 매우 가치 있는 성격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낙관성의 연구는 주로 심리적, 정서적 요소들과 관련지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진로영역과 낙관성의 개념을 접목시켜 연구한 것은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진로선택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중요한 발달 과제이며, 또한 진로영역은 개인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영역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향의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개인의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측면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들과 진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낙관성과 진로와의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낙관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낙관성 수준이 낮은 학생들 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성취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권혜경, 이희경 2004, 진현정 2011).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으며(최영순 2006), Creed 등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높은 학생이 진로계획과 탐색을 더 많이 하고 진로결정에 더 확신을 가지며, 더 확실한 진로 목표

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Creed, Patton & Bartrum, 2002), 이처럼 낙관성은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영향을 미치는 진로변인으로 진로결정을 선택하였는데, 진로결정이란 자신이 선택한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한다(Wanberg & Muchinsky, 1992).

####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편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낙관성과 함께 인간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Levitt, Guacci-Franco, & Levitt, 1994). 사회적지지만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진로 결정에서는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할 수 있도록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94).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외부적, 환경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은 부모님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완수 2005, 이상희 2005).

Blustein(1989)은 일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 수행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진로계획과 직업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음이 보고되었다(오은경, 2003; 한수현, 2003).

낙관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원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으며(Park & Folkman, 1997),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ougall et al, 2001). 또한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방법에서 손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보다 나은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Folkman, & Moskowitz, 2000). 낙관성이 높은 학생들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낙관성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낙관적인 성격 특성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현숙, 2006), 또한 사회적 지지는 낙관성과 부정정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Trunzo, & Pinto, 2003). 따라서 진로결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낙관성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높이고 이는 진로결정수준을 높여 낙

관성과 진로결정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며(오은경, 2003),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낮고,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한수현 2003). Blustein (1997)은 교사와 또래 친구의 호혜적인 관계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특별히 친구관계의 긍정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친구관계는 위계적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며 양방향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될 수 있다. 교사는 개인의 진로결정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친구관계는 진로발달 전 단계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현진, 2009). 오치선, 이복희(2005)는 모성애, 또래 지지 등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이러한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면서 특히, 여대생의 경우는 친구의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에 들어서면서 또래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가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urman & Buhrmester 1985). 부모는 장기적인 진로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중요한 선택에서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Brien & Fassinger, 1993). Furman(1985) 등은 다양한 사회적지지 제공자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애정, 원조, 도구적 도움, 가치감 증진 등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고하였다.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낙관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순희, 손은령 20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으로 학업성취와, 진로결정 및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Luzzo 199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선택,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속적인 계획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개인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효능감이 낮을 때, 그 직업의 선택을 보류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은진 2001). 이상희(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필기(2003)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낙관성 수준이 작은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낙관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이순희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이유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써, 개인 내적 인지적 변인에 속하는 낙관성이 맥락변인으로 볼 수 있는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촉진 변인으로 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관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촉진 및 보완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이순희, 손은령 2013). 또한,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다른 인지적 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종운, 박성실, 2014; 박용두, 이기학, 2007). 이처럼 진로 영역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회복탄력성, 성격적 강점덕목, 자기결정성, 진로결정자율성, 자아탄력성, 정서지능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 관련 변인들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김민선, 서영석, 2009; Pederson & Voge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 및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낙관성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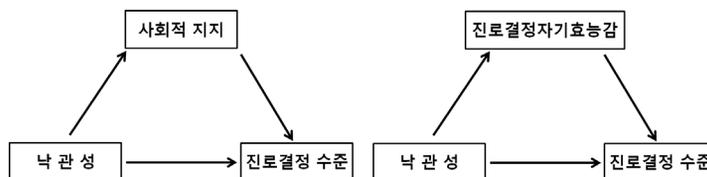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가설 2.**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지지는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 경북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34명을 제외한 총 30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분포, 연령이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연령대는 20대 미만이 6명(2.0%), 20세~25세 279명(91.2%), 26세 이상 21명(6.9%)로 분포되었다.

### 측정 도구

#### 낙관적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의 측정을 위하여 Schaefer, Carver(1992)가 개발한 Life Orientation Test(LOT)를 Scheier, Carver 및 Bridge(1994)가 개

정한 LOT-R 을 사용하였다. LOT-R 은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로서 6개의 낙관성 측정문항과 실험 참여자들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설문지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4개의 모호 문항을 포함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낙관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8로 나타났다.

#### 진로결정수준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 태도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는 5개의 하위 요인 총 4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에서 10개 문항의 결정성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결정성 차원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 결정 수준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사회적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남학생	89(20.7)	58(13.5)	51(11.9)	53(12.4)	251(58.5)
여학생	59(13.8)	22(5.1)	48(11.2)	49(11.4)	178(41.5)
전 체	148(34.5)	80(18.6)	99(23.1)	102(23.8)	429(100)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개 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교사 등이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 판단할 수 있는 부모와 친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만을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62로 나타났으며, 평가적지지 .89, 정서적지지 .88, 물질적지지 .85, 정보적지지 .84로 나타났다.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Betz, Klein 과 Taylor(1996)가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번안한 25문 단축 척도를 사용하였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자기평가를 제외하고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실시하였다. 총 점수가 높으면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가 높음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1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 분석을 위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낙관성, 진로결정수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먼저 낙관성은 진로결정수준과 사회적지지(부모, 친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진로결정 수준은 사회적지지(친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사회적지지(부모)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지지(부모)는 사회적지지(친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지지(친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위계적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거쳤다. 매개효과를 갖기 위하여서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1. 낙관성					
2. 진로결정수준	.30***				
3. 사회적지지 (부모)	.27***	.08			
4. 사회적지지 (친구)	.31***	.12***	.66***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	.55***	.23***	.27***	

\*\*\*  $p < .001$

표 3.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부모님)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예언변인	B	SE	$\beta$	$R^2$	F
1단계 (독립→매개)	사회적지지	낙관성	1.20	.241	.274***	.075	24.72***
2단계 (독립→종속)	진로결정수준	낙관성	.427	.077	.303***	.092	30.68***
3단계(독립, 매개→종속)	진로결정수준	낙관성 사회적지지	.427 .000	.080 .018	.303*** -.000	.092	15.29***

\*\*\*  $p < .001$

표 4.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친구)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예언변인	B	SE	$\beta$	$R^2$	F
1단계 (독립→매개)	사회적지지	낙관성	1.365	.242	.307***	.095	31.736***
2단계 (독립→종속)	진로결정수준	낙관성	.427	.077	.303***	.092	30.683***
3단계(독립, 매개→종속)	진로결정수준	낙관성 사회적지지	.415 .008	.081 .018	.295*** .027	.092	15.410***

\*\*\*  $p < .0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줄어들어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완전매개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나 모두 유의미한 수준일 경우에는 부분매개로 해석한다.

이를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부모)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지(부모)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낙관성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에는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Baron과 Kenny(1986)의 첫째와 둘째 단계는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사회적지지(부모)가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독립변인인 낙관성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미했으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친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지(친구)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낙관성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에는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Baron과 Kenny(1986)의 첫

째와 둘째 단계는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사회적지지(부모)가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위계적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거쳤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Baron과 Kenny(1986)의 첫째와 둘째 단계가 검증되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낙관성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미했으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으

표 5.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예언변인	B	SE	$\beta$	$R^2$	F
1단계 (독립→매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낙관성	1.638	.182	.460***	.211	81.435***
2단계 (독립→종속)	진로결정수준	낙관성	.427	.077	.303***	.092	30.683***
3단계(독립, 매개→종속)	진로결정수준	낙관성	.058	.095	.032	.303	11.2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99	.027	.583***		

\*\*\*  $p < .001$

로 나타났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논 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낙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낙관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관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연구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관성은 개인에 대한 신념으로써 일종의 기대-가치 이론으로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이며, 환경이 바뀌더라도 안정된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 볼 수 있다. 낙관성은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에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 친구의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진로상담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과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낙관

성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낙관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사실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고 자기 결정권 및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부모)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결정 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지지(친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김민정(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지각된 부모의 지지보다, 지각된 친구의 지지를 더 높게 보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친구의 지지가 진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20세 이상의 대학생일 경우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의 지지보다는 또래 친구의 지지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송재영(2003)은 교사는 개인의 진로결정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친구관계는 진로발달 전 단계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진로에서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기존의 선행 연구들(Hackett & Lent, 1992)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자기결정성에 의해 진로를 선택 결정하므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부모, 친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 사이에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낙관성은 성향적인 특성인 기대-가치 이론에 해당하는 성격특성으로, 사회적 지지의 부모님과 친구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은 대학생의 경우 주위사람들의 지지나 영향이 생각보다 진로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Taylor 와 Betz(198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왔으나 진로결정에서는 함께 연구한 진로자기결정효능감과 비교하였을 경우,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에는 사회적 지지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는,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낙관성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낙관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라는 매개 변인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진로 영역에서 훨씬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상담자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이해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진로상담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사회의 IT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진로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해 졌으며 이로 인하여 부모님이나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한편 이런 정보화 시대에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로 인하여 진로의사 결정이 예전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진로를 결정함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Taylor 와 Betz(1983)는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을 할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 등에 대한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진로지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장면에서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지적 변인들을 진로영역에 접목시키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 및 인지적 관련 요소들이 있을 때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들을 직접목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혜숙, 201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의 심리적 변인을 측정했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기보고식 질문에 응답자들이 긍정적 자기의 편파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특정지역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성별 및 학년, 전공별로 균형을 이루는 표집을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관성을 측정한 도구는 성향적 낙관성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의 측정을 위하여 Scheier, Carver(1992)이 개발한 Life Orientation Test(삶의 정향 평가지 LOT)를 Scheier, Carver 및 Bridge(1994)가 개정한 LOT-R 척도로써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개의 문항을 제외시켰으나, 문항의 신뢰도가 .68로 높지 않게 나왔다. 이후에는 노영천(2011)에 의해 개발된 성향적 낙관성과 설명양식적 낙관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신뢰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관성이 진로에 미치는 효과 연구가 긍정적인 것으로만 편향되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추후에는 낙관성이 진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관성과도 함께 측정되어 두 성향변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그 하위요인별로는 목표선택, 문제해결, 직업정보는 부분매개를, 미래계획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초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코칭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짐으로써 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코칭 제공이나 프로그램에서의 응용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 성숙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민선, 서영석 (2009).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맥락적 지지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22.
- 김민정 (2006).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에서 인지 정서조적 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완수 (200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운, 박성실 (2014).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

- 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279-300.
- 김필기 (2003). 여중생의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울, 학습된 무기력, 자기효능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천 (2001). 한국인용 낙관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용두, 이기학(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41-1056.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손은령, 이순희 (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 송재영 (2003).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논문*.
- 신현숙 (2006). 대입 수험생의 낙관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2), 485-503.
- 오은경 (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치선, 이복희 (2005).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순희 (2012).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4(4), 2525-2544.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진 (2009). 영어교사의 교사유형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현정 (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순 (2006). 중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혜숙 (2012). 진로정체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 및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tz, N. E. (1994). Self-concept theory i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1), 11-32.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6.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02-111.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42-61.
- Dougall, A. L., Hyman, K. B., Hayward, M. C., McFeeley, S., & Baum, A. (2001). Optimism and traumatic stress: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2), 223-24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0). Positive affect and the other side of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647-65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Hackett, G., & Lent, R. 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areer psychology.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 419-452.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span: Systematic Approaches (6th ed.)*. Bacon, Needham Heights, MA: Allyn & amp.
- Levitte, M. J., Guacci-Franco, N., & Levitt, J. L. (1994).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multicultural stud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07-222.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3), 319-322.
-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L. (1998). A caus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166-181.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Park, C. L., & Folkman, S.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psychosocial resources during caregiving and bereavement in partners of

- men with AIDS. *Journal of Personality*, 65(2), 421-447.
- Pederson, E. L., & Vogel, D. L.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American psychologist*, 55(1), 44-55.
- Savickas, M. L. (1999).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 326-336.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eligman, M. E. (1990).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Seligman, M. E.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Simon and Schuster.
- Tiger, L. (1979). *Optimism: The biology of hope*. Simon and Schuster.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runzo, J. J., & Pinto, B. M. (2003).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optimism and distress in breast cancer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4), 805-811.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1차 원고접수 : 2018. 05. 03

2차 원고접수 : 2018. 05. 21

최종게재결정 : 2018. 06. 04

## The Effect of Optimism on Level of Career Decisio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a Mediating Variable

Lee, GyuRee

Gimcheon University

Lee, Sanghee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A total of 340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asic data was analyzed by SPSS 23, and mediating effects was analyzed by following 3 steps of Baron and Kenny (1986).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all predictor variables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Second, the results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social support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study suggest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in career coaching situation for enhancing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Optimism,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